

신명기

메시지 12

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생활과 축복

성경: 신 30:15-20, 시 36:9상, 133:1, 3, 겔 34:26, 엡 1:3

- I.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요구되었다 — 신 30:15-20, 3:23-28, 4:1-24.

- II.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생명과 죽음을 두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명하였다 — 신 30:15, 19-20.
 - A. 하나님께 생명의 원천이 있다 — 시 36:9상.
 1.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 존재의 원천 곧 근원으로 취하기를 원하신다 — 시 36:9상.
 2.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의 첫째가는 속성이자 기본적인 속성으로 여겨질 수 있다 — 엡 4:18, 요 5:26, 요일 5:11-12, 롬 8:2.
 - a. 하나님의 생명의 신성하고 영원한 본성에 따르면, 하나님의 생명은 유일한 생명이다.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 — 요 1:4, 10:10하, 11:25, 14:6.
 - b.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이며 하나님의 흘러나오심이다. 하나님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이며, 하나님의 흘러나오심은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— 엡 4:18, 계 22:1.
 - c. 생명은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— 롬 8:2, 6, 10-11.
 - B. 창세기 2장 9절,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 두 가지 선택, 곧 생명 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있는 것을 본다.
 1. 생명나무는 음식의 형태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,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— 창 2:9, 계 2:7, 요 1:4, 14:6상, 10:10하, 6:35, 57, 63.
 2.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죽음의 근원인 사탄을 상징한다 — 히 2:14.
 3.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생활의 두 원칙을 나타낸다. 이 원칙은 생명의 원칙(하나님을 의존함)과 옳고 그름의 원칙(하나님에게서 독립함)이다 — 창 2:9, 16-17, 4:3-4, 램 17:5, 요 15:5.
 4. 이 두 나무는 우리 안에서 생활의 두 원칙으로서 작용하고 있다.

결정 연구 개요

메시지 12 (계속)

5. 요한복음은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서로 대립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— 요 4:10-14, 20-21, 23-24, 9:1-3, 11:20-27.
 6.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에 따라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에 따라서 문제들을 분별해야 한다 — 고후 11:3, 창 2:9, 16-17.
- C.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죽음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 — 마 16:18, 행 2:24, 딤후 1:10.**
1. 죽음은 사탄의 일의 특징이다. 사탄의 일의 최종 목표는 죽음이 사람 안에 완전히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— 히 2:14-15.
 2. 마태복음 16장 18절은 교회에 대한 공격이 어떤 근원에서 올지를 보여 주는데, 그 근원은 ‘음부의 문들’ 곧 죽음이다.
 - a. 사탄의 특별한 목적은 교회 안에 죽음을 퍼뜨리는 것이며, 교회와 관련하여 그가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가 그의 죽음의 세력에 저항하는 것이다 — 계 2:8, 10-11.
 - b. ‘이 반석’ 위에 건축된 교회는 죽음과 생명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으며, 음부의 문들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— 마 16:18.
 3. 죽음의 공격을 이기고자 한다면,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시며, 살아 계신 분, 곧 죽은 적이 있었지만 다시 사셨고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— 계 1:17-18, 2:8.

III.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— 신 30:19.

- A.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며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,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통치권을 가진 한 살아 있는 피조물을 보셨기 때문이다.
- B.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에게 복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한 영역이자 범위인 왕국을 얻으심으로, 그분의 완전하고 신성한 권위 아래서 그분의 행정을 집행하실 수 있어야 한다 — 마 6:10, 골 1:13.
 1. 그러한 왕국이 없다면,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영역을 갖지 못하신 것이다.
 2. 일단 왕국이 있게 되면,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쏟아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영역과 범위가 된다 — 계 11:15.
 3. 우리는 모두 축복을 얻기를 원하지만, 축복에는 하나님의 권위의 범위 곧 하나님의 행정 아래 있는 범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지도 모른다.

신명기

메시지 12 (계속)

- C. 하나님은 ‘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’ — 엡 1:3.
1.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.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다.
 2. ‘모든’은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것을 포함함을 가리킨다.
 3. ‘영적인’은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관계를 가리킨다.
 - a.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모든 축복은 성령과 관계가 있다.
 - b.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통로이실 뿐 아니라 그 축복의 실재이시다.
 - c. 아버지 하나님, 아들 하나님, 영 하나님은 모두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들과 관계되신다 — 엡 1:4-14, 3:16-17, 4:4-6.
 - d. 하나님의 축복은 주로 우리 안으로 삼일 하나님을 분배하는 것이다 — 고후 13:14.
 4. ‘하늘들의 영역’은 하늘에 속한 장소뿐 아니라,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영적인 축복들의 하늘에 속한 본성, 상태, 특징, 분위기를 가리킨다.
 - a. 이 축복들은 하늘들에서 온 것이며, 하늘에 속한 본성, 하늘에 속한 상태, 하늘에 속한 특징, 하늘에 속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.
 - b.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, 하늘에 속할 뿐 아니라 영적인 이러한 축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.
 5. ‘그리스도 안에서’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효능과 수단과 범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킨다.
 - a.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.
 - b. 그리스도는 우리가 축복을 받도록 한 효능과 수단과 범위와 통로이시다.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한다.
 6. 이러한 축복들의 본성이 영적이기 때문에,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우리의 영 안에서 이 축복들을 실재화하고 체험하며 이 축복들에 참여해야 한다 — 롬 8:4.
- D. 하나님의 축복은 내재적으로 하나(eness)와 관계있다 — 시 133:1, 3.
1. 시편 133편 1절에서 말하는 ‘연합’은 신약에 있는 진정한 하나에 대한 그림이다. 이 하나는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과 연합되신,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— 요 17:21-23.
 2. 시편 133편 3절에서 ‘거기서’는 주님께서 복, 곧 영원한 생명을 명하신 곳을 가리킨다.

결정 연구 개요

메시지 12 (계속)

- E.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생명으로 목양하심으로, 우리를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데로 이끄시며, 우리를 축복의 소낙비 아래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— 겔 34:23, 26-27상, 29, 슥 10:1.
1.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, 그런 후에 주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어 다른 사람들이 공급을 받도록 하신다 — 겔 34:26.
 2. 하나님은 제때에 축복의 소낙비를 내리실 것이다 — 슥 10:1.
- F. 우리가 주님께에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, 주님께서 우리를 무언가로 만들어 주시는 것, 즉 주님께서 우리가 무언가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다 — 계 3:12.
1.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나오는 주님의 약속은 이기는 이를 하나님의 성전 안의 기둥이 되게 하는 것이다.
 - a. 하나님의 성전 안의 기둥이 되는 것은 변화와 건축과 관련된다 — 계 21:22, 고후 3:18, 엡 2:21-22, 4:16.
 - b.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성전으로 건축해 주시는 것은 위대한 축복이다. 이것은 우리의 존재,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있다 — 골 1:27-28.
 2. 우리가 이 이상을 본다면, 교회생활 안에서 주님의 의도가 우리 밖에서 무언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,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우리를 또 다른 종류의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— 계 21:10-11.
 3.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외적인 축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. 그보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를 귀한 재료들로 변화시킨 다음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건축하시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— 엡 2:21-22.
- G.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은 축복의 생활이며,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일은 축복의 일이다 — 민 6:23-27, 마 5:3-11, 24:46, 요 20:29, 갈 3:14, 고후 9:6, 롬 15:29.
- H. 우리는 우리의 일과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우리의 교회생활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— 엡 1:3, 말 3:10.
- I.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. “주님, 당신의 축복의 의미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상을 주시고, 우리가 아무런 장애 없이 당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.”